



“시민이 주인공”... 제주서 대한민국시민연극제

올해 2회째... 이달 28일~9월 6일 문예회관 소극장 전국 8팀 경연과 프린지 공연, 워크숍, 독백 경연도 관객 수용 과제로... 보조의자 투입 등 최대한 수용

제주가 다시 연극 향연으로 물든다. 이번엔 시민연극제다.

지난 7월 막을 내린 국내 최대 연극축제 ‘제41회 대한민국연극제 제주’의 여운을 잇는 ‘제2회 대한민국시민연극제 제주’는 이달 28일 개막해 9월 6일까지 제주 문예회관 소극장에서 관객과 만난다.

‘대한민국연극제’의 일환으로 지난해 첫선을 보인 시민연극제는 전국 시민단체(동아리)가 펼치는 순수 연극제로, 생활 연극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다.

제41회 대한민국연극제 제주 집행위원회는 지난 11일 제주문예재단 지하 1층 상황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2회 대한민국시민연극제 제주’ 추진 계획을 설명했다. 이달 28일 개막식 및 개막공연으로 문을 여는 시민연극제는 29일부터 9월 6일까지 제주를 포함한 전국 8개 팀의 경연이 펼쳐진다. 소극장 무대점점이 이뤄지는 9월 4일을 제외한 매일 1회 오후 7시30분에 만날 수 있

다. 다만, 폐막식날인 6일 마지막 공연만 오후 4시에 진행된다.

이번 시민연극제 참가를 신청한 총 47개 단체 가운데 최종 선정된 8개 단체는 ▷서울 종로 ‘극단 생활’ (29일) ▷서울 용산 ‘극단 누리’ (30일) ▷전북 전주 ‘시민연극 동호회 나로누리’ (31일) ▷경북 상주 ‘청년씨어터 엔이에스티’ (9월 1일) ▷경기 화성 ‘노작시민극단 산유화’ (9월 2일) ▷강원 춘천 ‘춘천시민극단 봄내’ (9월 3일) ▷부산 남구 ‘이주여성극단 다락방’ (9월 5일) ▷제주 ‘제주시자원봉사센터’ (9월 6일)다. 참가팀에 대한 소개와 경연작품에 대한 상세한 내용 등 자세한 일정은 대한민국연극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각 경연 공연이 끝난 후에는 문예회관 놀이마당에서 약 30분간 연극, 무용, 국악, 타악, 마임, 퍼포먼스 등 다양한 장르의 공연을 즐길 수 있는 부대행사 프린지 페스티벌도 열린다.



제주에서 열리는 ‘제2회 대한민국시민연극제’ 경연 공연의 마지막을 장식할 제주시자원봉사센터의 공연 장면. 제41회 대한민국연극제 제주 집행위원회 제공

이외에 흥윤희 뮤지컬·연극 배우와 박성찬 연출가가 감사로 나서는 연극사랑 시민 워크숍(9월 1·3일 세이레 아트센터)과 아마추어 독백 경연대회인 시민배우 독백 무대(9월 2일 문예회관 놀이마당)도 부대행사로 준비됐다.

제주색을 담은 개막축하공연도 주목된다.

28일 무대에 오르는 작품은 낭독극 ‘배비장전’ (정민자 각색, 황태선 연출). 대한민국연극제 명예대사인 김희화, 박순천 배우 등 원로·중견배우들이 펼칠 열연이 기대되는 무대다.

개막공연을 비롯 다채로운 연극

무대가 준비됐지만 소극장에서 진행되면서 공연당 최대 100여 명만 무대를 만끽할 수 있을 전망이다.

집행위에 따르면 문예회관 소극장 객석은 고정석 70석에 보조의자를 더해 최대 110~130여명 정도를 수용할 수 있다.

무료 공연이기에 현재로서는 일단 ‘노쇼’ 관객을 줄이고 현장에서 선착순 입장을 방침으로 세웠지만 자칫 일부 시민들이 헛걸음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다. 집행위도 이 부분을 걱정하고 있다. 특히 개막공연을 보러 관객이 몰릴 것이 예상되는 개막식엔 내빈석을 줄이고 보조의자를 추가 투입하는 등 관객을 최대한 수용한다는 계획이다. 오은지기자

막바지 향하는 금빛 관악 향연

15일 축제 백미 시가퍼레이드 이어 경축음악회로 대미 장식

지난 7일부터 시작된 화려한 ‘금빛 관악 향연’ 제28회 제주국제관악제 여름시즌이 막바지를 향해 가고 있다.

무더위가 이어진 주말과 휴일에도 도내 곳곳에선 청소년관악단을 비롯 국내외 관악인들이 무대에 올라 웅장하고 감미로운 금빛 선율을 관객들에게 선사했다.

14일에도 제주섬 곳곳엔 관악 선율을 실은 ‘금빛 바람’이 분다. 오후 8시엔 탐동해변공연장에서 태국의 나콘랏차시마예술대학관악단과 프랑스의 생토메르하모니워드오케스트라의 공연이, 제주 문예회관 대극장에서 호르니스트 프랭크 로이드(영국), 트롬보니스트 데이비드 레이(스위스), 트럼페티스트 호세 시바하(미국)와 호른6중주가 출연하는 마에스트로콘서트가 예정

돼 있다. 이날 오후 7시엔 서귀포 천지연폭포야외공연장에서 다채로운 앙상블&관악단 공연이 펼쳐지며, ‘우리동네 관악제’도 아라요양병원, 탐라교육원, 제주목 관악회관에서 진행된다.

광복절인 15일엔 축제의 백미로 꼽히는 시가퍼레이드가 오후 6시30분부터 제주문예회관 광장에서 시작된다. 칠성로 차 없는 거리를 거쳐 도착한 탐동해변공연장에서 오후 8시부터 이번 여름시즌의 대미를 장식할 경축음악회가 열린다.

경축음악회 무대는 이번 관악제에 참여한 세계 관악인 70여 명으로 구성된 제주국제관악제연합관악단과 도립제주·서귀포합창단을 비롯 시민합창단 250여 명이 모인 제주시민연합합창단 등이 꾸민다.

한편 올해 제주국제관악제는 여름시즌과 함께 진행된 제18회 제주국제관악콩쿠르의 시상식 및 입상자 음악회(16일)를 끝으로 10일간의 여정을 마치고 막을 내린다. 오은지기자



제주아트플랫폼 이달부터 무료 대관

제주문예재단, 공사 전까지

제주문화예술재단은 (가칭)제주아트플랫폼 조성을 준비 중인 제주시 원도심의 옛 아카데미극장(재미섬 건물) 일부 공간에 대해 무료 대관을 시행한다. 대관 운영 기간은 이달부터 향후 본격적인 리모델링 공사 전까지다.

대관 및 부대시설 사용료는 무료며, 공간 이용은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다. 대관 지

원 공간은 옛 아카데미극장 전체 8층 중 1층 워크숍룸(약 152㎡)과 로비(약 773㎡), 2층 전체(약 1239㎡)이다.

재단 관계자는 “1층 워크숍룸은 교육, 세미나 및 워크숍 운영에 적합하며, 전시나 예술 체험 등 문화 예술 관련 행사의 경우 1층 로비와 2층 전체를 활용할 수 있다”고 전했다. 자세한 내용은 재단 누리집 알림 마당에서 확인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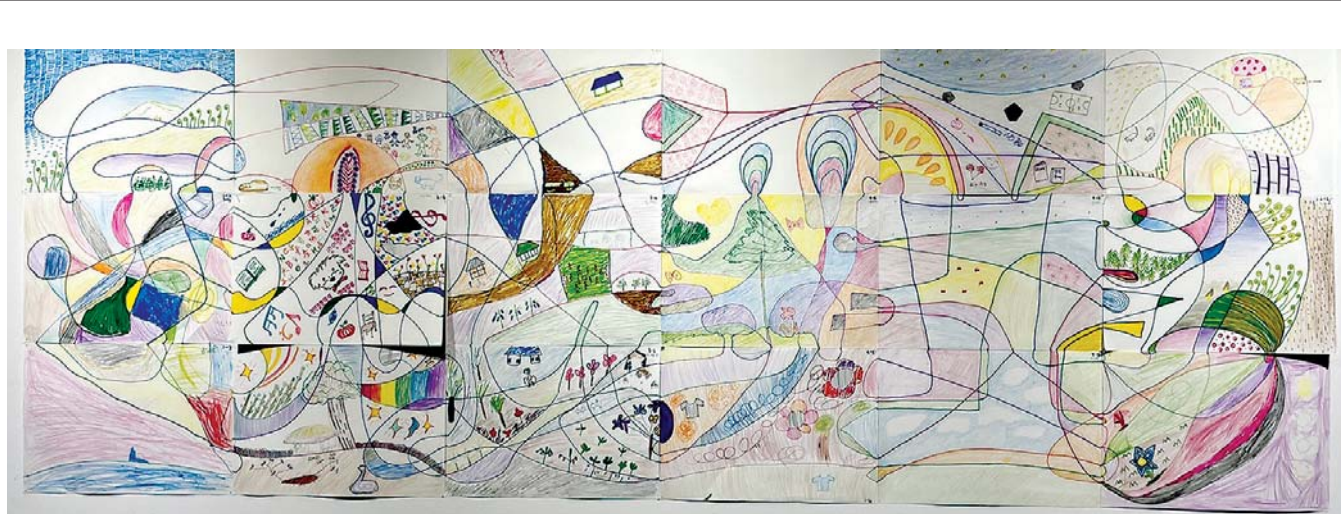
오은지기자 ejoh@ihall.com

산양리 주민 “나도 예술가”

이달 16~30일 예술꽃산양서 작가와 함께 ‘산양의 그림전’

제주시 한경면에 위치한 예술꽃산양에서 특별한 전시가 열린다. 지역주민들이 예술꽃산양 입주작가와 함께한 창작의 결과물을 재구성해 선보이는 ‘따뜻한 빛이 쏟아지는 우리들의 이야기-산양의 그림전’이다.

예술꽃산양 3기 입주작가인 전희경 작가는 지난 7월 26일부터 8월 3일까지 산양리 주민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전 작가는 그림 그리기를 통해 주민들이 주변과 사회와의 관계를 인식하고 서로가 긴밀하게 연결돼 있음을 환기하는 계기를 제공하고자 했고, 작가의 의도는 산양리 주민 64명이 도화지 위에 ‘산양’과

‘나’를 주제로 그린 64점의 그림이 퍼즐처럼 이어진 하나의 큰 그림으로 완성된 작품에 그대로 반영됐다.

예술꽃산양 관계자는 “이번 전시 준비과정은 입주작가가 지역 주민들과 유대감을 나누면서 지역에 대

한 이해를 높일 수 있는 소중한 계기였다”고 전했다.

전시는 이달 16일부터 30일까지다. 16일 오전 11시 예술꽃산양 전시실에서 열리는 오프닝에 참여한 관람객에는 무료로 국수 나눔을 할 예정이다. 오은지기자

제주시 일반여행업 등록번호 제17호, 제주시 온남길 25 | 2009 문화관광부 제주마이스터 & 인센티브제주여행 상품 인증 / '고객감동 해외여행서비스' 보증보험 2억 가입

제주홍익여행사

746-2200

www.jejuhongik.co.kr

예약폭발

서두르십시오!

제주-마카오 : 왕복직항 한정좌석 마감임박

매주 화·토

제주직항 마카오 전세기

항공권 별도문의

특가

마카오·계림 3박5일

8월~10월

[토요일 출발]

810,000

(화)출발 별도 문의

4박6일 900,000

| 주요일정 |
제주-마카오-주해-영산-이강유람선-서귀포시제시장-계림(동쪽마을), 은자암동굴-월랑산-세외도원-북파산-상비산-성바울성당-세나도광장-육포거리-몬테요새 관광

특가

홍콩·마카오·주해 3박5일

8월~10월

[토요일 출발]

1,060,000

(화)출발 별도 문의

4박6일 1,216,000

| 주요일정 |
제주-마카오-주해-어녀상, 원명신원, 오페라하우스-공배이싱가, 화파상두, 소평정방문-홍콩-리벨스베이, 소호거리, 미드레벨, 할리웃로드-빅토리아파크, 윌타이신사원, 연인의거리-심포니오브라이트-소평센터-마카오(성바울성당, 몬테요새, 세나도광장, 아미시원, 관음당-MGM호텔, 그랜드리스보아호텔-골리안빌리지, 프린시스코성당, 문화거리-베네치안카지노, 자유일정-마카오-제주

특가

홍콩·마카오 3박5일

8월~10월

[토요일 출발]

1,170,000

(화)출발 별도문의

| 주요일정 |
제주-마카오-성바울성당, 몬테요새, 세나도광장, 아미시원, 관음당-MGM호텔, 그랜드리스보아호텔-홍콩(리벨스베이, 소호거리, 미드레벨, 할리웃로드), 빅토리아파크, 연인의거리, 심포니오브라이트-윌타이신사원소평방문-마카오(아미시원, 관음당, 갤럭시호텔), 플로안빌리지, 프린시스코성당, 문화거리, 베네치안카지노, 자유일정-마카오-제주

공통/사항

왕복항공료, 호텔(2인1실), 일일상의 식사제공, 관광지입장료, 전용차량료, 1억원여행자보험, 전쟁보험료, 관광진흥기금, 공항세, 최소 10명 이상 출발 모집가감-선착순 ★불포함 : 가이드 & 기사 팀/개인비용